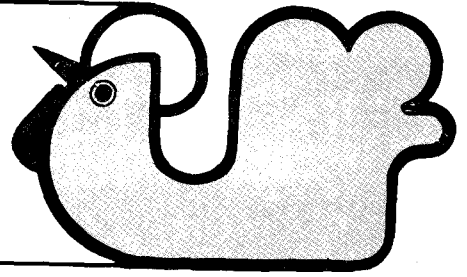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 자문·분과위원·전문위원 위촉 -



제2차 이사회가 지난 5월 18일(수)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협회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자문 및 분과위원, 전문위원 위촉, 포스터공모 예비심사, 기타 사항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업계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후 폐회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 후에는 최근 관심이 높은 양계협동조합조직 및 절차에 대해 강희구조합장을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들었다.

회의에서는 1990년 2월까지 임기의 전국의 대의원 정수 77명을 확정하고 자문위원 15명, 편집위원 11명, 닭경제능력검정위원 9명, 종계·부화분과위원 39명, 감별분과위원 13명, 채란분과위원 22명, 육계분과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을 결의했다.

● 자문위원(15명)

- 오봉국(서울대농대학장)
- 오세정(건국대축대교수)
-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장)
- 박찬공(한국사료협회장)
- 김용태(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회장)
- 이경원(미국대두협회한국대표)
- 최죽송(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 왕준련(식생활개발연구회장)
- 이계조(천호그룹회장)
- 차두홍(한일농원회장)
- 정규현(서부배합사료사장)
- 이철용(경기사료사장)
- 김길원(한국바이엘화학사장)
- 양재의(서울사료사장)

● 종계·부화분과위원(39명)

- 차상진(봉명부화장)
- 배성황(삼화농원)
- 신흥종(고창양계)
- 손종현(신진부화장)
- 김인영(양지부화장)
- 배선채(중원농장)
- 신주영(고골부화장)
- 정재덕(신일부화장)
- 서정환(대구천호부화장)
- 이건일(봉림부화장)
- 주양수(형제부화장)
- 최병현(한일농원)
- 이계옥(천호부화장)
- 이건남(대전신기농장)
- 최중윤(제일부화장)
- 류왕백(영진부화장)

- 나영춘(대전형제부화장)
- 박종인(광주부화장)
- 강명중(협동부화장)
- 김용찬(순흥부화장)
- 김영환(광천농장)
- 이상윤(신기농장)
- 이종운(기류농원)
- 박준영(한협축산)
- 이순오(죽전부화장)
- 이규상(유일농원)
- 천일만(서림부화장)
- 송유돈(영남부화장)
- 한재권(강남부화장)
- 박수남(복지농장)
- 김남수(대지농장)
- 남광풍(풍전부화장)
- 김수동(창동부화장)

김교석(우화부회장)
이재식(계유부회장)
정석택(명지부회장)
정상태(홍성부회장)
현영권(연무대부회장)
송두진(지산부회장)

● 감별분과위원(13명)

박종환(홍일부회장)
김수환(고창양계)
민경두(해외병아리감별학원)
조진각(한일농원)
박수남(복지농장)
정유범(봉명부회장)
강채원(부산일원감별)
서연석(해외병아리감별학원)
양찬식(경기일원감별)
문형기(부산일원감별)
정일채(천호부회장)
백기석(경기일원감별)
하경미(부산병아리감별학원)

● 채란분과위원(22명)

한 순(홍일농장)
노광순(운암농장)
이학복(성일농장)
김 현(발안농장)
한명복(교하농장)
심준식(산곡농장)
황석규(삼진농장)
최영식(대창농장)
허 돈(청천농장)

오재정(인원농장)
안호공(복산농장)
최병훈(월산농장)
최정삼(정화농장)
최준구(광주채란분회)
송복근(동두천분회)
구본영(안성분회)
최상욱(장재농장)
경북지부(채란분과위원장)
경남지부(채란분과위원장)
전북지부(채란분과위원장)
전남지부(채란분과위원장)
제주지부(채란분과위원장)

● 육계분과위원(22명)

장민기(버들농원)
권태웅(솔피농원)
김중설(영양농장)
백명기(혜원농원)
원승재(포천분회)
공용구(대전계우회)
이종길(안평농장)
김풍림(성림농장)
김중철(갈티농장)
강석부(수원육계사업소)
조정래(수원육계분회)
최진우(사부장농장)
이준상(영암농장)
박명완(의정부육계분회)
최종필(용인육계분회)
성창규(이천육계분회)
김기환(김포육계분회)

경북지부(육계분과위원장)
경남지부(육계분과위원장)
전북지부(육계분과위원장)
전남지부(육계분과위원장)
제주지부(육계분과위원장)

● 닭 경제능력 감정위원(9명)

오봉국(서울대농대)
오세정(건국대축대)
김춘수(단국대농대)
정선부(축산시험장)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한성욱(충남대농대)
박태진(종축원대전지원)
김상희(가축위생연구소)
박준근(농림수산부)

● 편집위원(11명)

김순재(건국대축대교수)
김영환(양계연구소장)
김정인(신촌사료전문)
신정재(과학사료사장)
임병규(서울사료전문)
정선부(축산시험장가금과장)
송상정(아람농장대표)
오경록(천호부회장전문)
장경국(선진사료이사)
유철호(농경연축산개발실장)
최진호(푸리나코리아이사)

계란가격 안정대책 건의

- 가공공장 및 GP센터설치 -

본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계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지난 5월 27일 농림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각 계란가격안정대책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채란업은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유통으로 유통상인의 지능적인 담합가격조작 등 횡포로 제값받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계절편중소비와 연중 가격진폭이 심해 가격조절 기능이 없어 생산자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생업을 영위하고 있어 최근 도산농가가 속출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 수준은 점차 향상돼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 기존 처리시설로는 소비확대에도 문제가 많아 관계요로에 계란가공공장 설치 및 GP센터 설치운동을 건의하게 되었다.

건의내용은 축협중앙회에서 중부권·영·호남 등 3

개소에 계란가공공장 3개소 운영 및 지역축협에서 집하가 용이한 도시근교에 시범 GP센터 설치운영을 해줄 것 등이다.

이는 민간차원에서 수익성 때문에 설치운영이 어려워 초창기 정책차원에서 축협중앙회 등 공익기관이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거 일본도 60년대 GP처리 시설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실시해 단기간 유통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본회 회장단과 황인옥전무는 정부 경제구조조정 자문회위원과 정책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건의 요지설명과 이의 관철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요를 방문하였다.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계란가공공장(액란·분란) 설치운영
 - 설치주체 :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 설치장소 및 수량 : 전국에 3개소(중부권 1개소, 호남 및 영남권 각 1개소)
 - 운영 : 중앙회 직영 또는 회원조합에 위탁운영
 - 운영방법 및 적자보전
 - 계란가격 하락시 수매가공 비축
 - 계란가격 폭등시 가공품 방출
 - 적자발생시는 초창기 일정기간 축산진흥 기금 또는 국고에서 보조
- GP센터 설치운영(시범사업)
 - 설치주체 :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 설치장소 :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기타 시단위이상 도시 또는 집하가 용이한 도시근교에 시범 GP센터 설치
 - 운영주체 : 지역축협(양계조합 포함)
 - 운영방법 및 적자보전
 - 생산자로부터 구입 또는 위탁을 받아 매일 처리 판매
 - 과잉생산분은 가공장에 납품
 - 적자발생시 초창기 일정기간동안 축산진흥 기금 또는 국고에서 보조

닭고기·계란 홍보포스터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 이우철씨 작품 당선—

본회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닭고기·계란의 영양적, 경제적 우수성을 널리 홍보키 위해 소비촉진용 홍보포스터를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상공모한 바 총 59점이 접수되었다.



▲ 5차에 걸쳐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1988. 5. 18(수) 본회 이사회에서 1차 예심을 거쳐 5. 21(토) 관계전문가들이 모여 2차 최종심사를 하였다.

응모작품의 내용이 여타공모전 평균을 넘는 수준작이 많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있었으며 이런 내용을 감안한 결과 당초 입상내역에 없던 가작을 5점 추가 선정했다(본문 116페이지 참조).

입상내역과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상내역

- 최우수작 1편 1,000,000원
- 우수작 2편 1,000,000원(각 500,000원)
- 가작 5편 250,000원(각 50,000원)
- 입선 5편 250,000원(각 50,000원)

최우수상 : 이우철

우수상 : 탁재훈 박분회 공동작품, 심재홍

가작 : 한규경, 변준섭, 정화자, 강정아, 전덕수

입선 : 한창수, 정영철, 김대중, 김효경,

양승범 이준희 공동작품

(계) 13명

경제구조조정 자문회 양계현장 견학

—본회 회장 대책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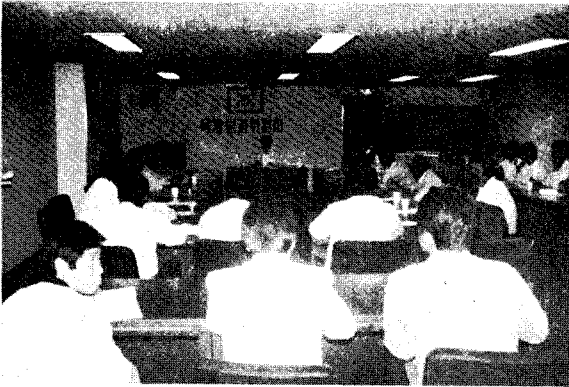
최근 계란가격 하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구조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오후 양계업 현장을 돌아보며 이의 해결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본회 회장단은 현장에 함께 출장, 양계업 현안 문제점을 설명하고 최근 본회가 정부에 건의한 계란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건의요지 설명 등 가격·수급조절의 정책적 해결을 강력히 요망했다.

경제구조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전병우)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회로 이날 설명회는 관계기관원도 함께 참석한 바 있다.

5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장민기 위원장 유임-



▲ 일부 육가공업체의 무분별한 칠면조고기수입에 대한 강력응징조치 결의가 있었다.

지난 5월 27일(금) 오후1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5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2명의 육계분과위원과 각도지부 육계분과위원장 임명에 이어 본회 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장민기 전위원장이 유임되었다.

버들농원 대표이며 본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장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 봉사를 다짐하면서 좀더 신뢰하고 화합단결된 분위기로 육계분화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정보교환과 급변하는 정세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내에 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은 장민기, 백명기, 김풍림, 김중설, 이종길, 권태웅, 조정래, 최종필, 강석부씨 등이 결정되었다.

한편 지역별 정보교환 및 북경기 육계가격전망과 농장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ND(뉴캐슬병), IB(전염성 기관지염) 등 질병만연에 관하여 토의하고, 최근 일부 육가공업체의 무분별한 칠면조고기 수입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88 제2차 검정위원회 개최

'88년 제2차 검정위원회(위원장 : 오봉국)가 6월 1일



▲ '88. 제2차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오후3시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1회 산란계 검정중간성적 검토와 제22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에 이어 종계일반검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한편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닭경제 능력검정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검정위원 명단

위원장 : 오봉국(서울대농대학장)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소장)

위원 : 김상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김춘수(단국대교수)

박중근(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계장)

박태진(국립축육원 대전지원장)

오세정(건국대교수, 한국가금학회장)

정선부(축산시험가금과장)

한성욱(충남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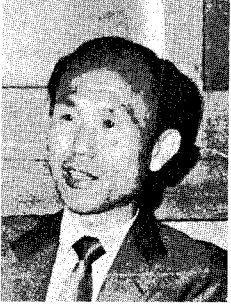
닭고기·계란 요리강습 및 시식회 개최
-국교 자모회 어머니들 대상-

본회는 국민학교 자모회를 대상으로 닭고기·계란 영양강의, 요리강습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가 주최하는 「학교순회 요리강습회」의 진행 중 하나로서 본회가 서울시 성북구 정릉국교 자모회(198. 5. 11(수) 14:00), 수원시 고색국교 자모회(1988. 5. 14(토) 11:00) 등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요리 강습회에서는 닭살치즈튀김, 닭보양탕, 닭튀김, 닭볶음탕, 닭살겨자구이, 달걀오므렛 등을 시범보였다.

노영한 편집국장 사임



(노영한 전무)

본회 노영한 편집국장이 5월 18일부로 본회를 사임하였다.

노영한 국장은 지난 20여년전부터 양계업계에 투신해 1973년 6월 본회에 입사한 이래 사무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하며 70년대·80년대 고도성장기의 양계업 발전에 산증인으로 일해왔다.

노국장은 5월 20일자로 대한양돈협회 전무로 임용되어 양돈산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조리사 보수교육지원 닭고기·계란 영양우수성 강의 강습 실시 및 요리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를 통한
실질적 소비촉진에 큰 도움—



△ 홍보사업으로 조리사 보수교육지원이 있었다.

본회는 지난 5월 3일부터 경기도지역 31개 시·군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의 조리사를 대상으로 닭고기·계란 영양강의와 요리강습회를 실시 중에 있다.

5월 27일 현재 15개 지역에서 연인원 2,715명이 참석하였다.

본 교육 참석자는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의 조리사와 주방조리 책임자로서, 이론적인 우수성 강의와 더불어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는 강습회는 소비촉진에 지름길이 되는 일로 매우 고무적인 행사이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기에는 꺼림찍했던 닭고기에 대한 터부나 계란에 대한 금기 등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인식을 새롭게함은 물론이고 영양적, 경제적 우수성을 타육류와 비교 설명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음으로 식품선택시 큰몫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의 프로그램은 조리사협회 경인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본회와 협의하에 식품위생관리를 제외한 교육은 모두 닭고기·계란 영양강의, 요리강습회만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소요되는 닭고기·계란의 재료는 본회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16개 지역이 더 남았으며, 법에 의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참석인원의 수는 조리사 등 6,000여명 이상으로 예상 된다.

학교 조리실습 지원 —활발한 진행으로 높은 호응—

본회는 8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학교 조리실습 및 영양강의를 88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내 학교 중심이었던 실습을 올해는 수도권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3월의 경기 간호보건전문대 식품영양학과 1년생 전원과, 4월의 안양공업전문대 식영과 1년생 전원, 5월의 동남보건전문대 식영과 1·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연인원 450여명이 참석했다.



본 실습은 기존 교과목의 조리수업을 활용해 닭고기·계란의 특성 및 영양을 본회직원이 20분간 강의하며 요리강습회를 한 후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시식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졸업후 영양사로 활동할 사람들로 1, 2년 후의 주소비자이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주 닭고기·계란을 접하고 새로운 메뉴를 배움으로써 친근감 있고도 자신있는 요리로 인식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3개 학교에서 실습이 예정되어 있다.

계란의 올바른 지식에 대한 기사게재

—1988. 5. 4 동아일보—

본회는 닭고기·계란을 소비시키기 위한 홍보사업을

다각적으로 적극 실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5월 4일자 동아일보 “의창(醫窓)”란에 「계란유해론 유감」이란 제하로 계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게재하였다.

원고집필은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학 서정론교수가 하였다.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아직 지방질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30%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지방질의 섭취를 장려해야 할 실정에 있고 따라서 계란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 특히 성장기의 아동, 폐경기전의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계란을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이익이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계란은 이익이 될 때가 더 많다」고 설명하였다.

본회에서는 양계농장의 구인난 해결에 도움을 드리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
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 양계관련업체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
- 직원이 필요한 농장

본회로 연락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양계협회 : ☎(02) 752 - 3571 · 2